

# 〈정시자전〉(丁侍者傳)의 주제의식: 식영암(息影菴)의 사물인식을 중심으로

강혜규(서울여대)

1. 서론
2. 주제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재론
3. 息影菴의 사물인식과 <丁侍者傳>
4. 결론

## 1. 서론

〈정시자전〉(丁侍者傳)은 고려시대 승려 식영암(息影菴)이 지은 가전(假傳)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 작가 식영암의 정체와 정시자(丁侍者)의 의인화 대상 및 주제의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sup>1)</sup> 그런데 작가 및 의인화 대상과 관련하여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비해, 주제의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견해 이외의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나는 인재등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불교사회의 폐해를 비판하고 있다는 견해이고,<sup>2)</sup> 다

- 1) 식영암이 덕흥군(德興君)이라는 설에 대해, 속성(俗姓)이 양씨(梁氏)인 인물이라는 설이 제기되었으며, 정시자의 의인화 대상이 정(丁)자형 나무 지팡이라는 설에 대해 석장(錫杖)이라는 설이 제기되었다. 김건곤, 「釋 息影庵의 正體에 대한 再論」, 『대동한문학』 25집, 대동한문학회, 2006 참조.
- 2) “신돈(辛旽)과 같은 승려계급으로 말미암아 불교의 폐해를 초래한 승려들의 양상을 모델로 하거나 작자의 환상을 부침(附添)한 것으로서 불교적 포시(布施)와 지도층의 실력과 자중성(自重性)을 권유한 것” 신기형, 「假傳體 文學論考」, 下(『국어국문학』 15집, 국어국문학회, 1957), 75면.  
민병수, 한국소설발달사: 한문소설(『韓國文化史大系』 V,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사, 1967), 1001면.  
김광순, 擬人小說의 史的 展開와 文學的 性格, 『韓國擬人小說研究』, 1987, 새문사, 97면.

른 하나는 작가의 불우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견해이다.<sup>3)</sup> 이 두 가지 주장은 작품 속의 특정 대목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작품의 주제는 작품 전체를 통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목이나 구절을 근거로 삼기에 앞서 작품의 전 맥락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정시자전>의 주제의식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식영암의 작품세계에서 일관되게 발견되는 문제의식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우선 주제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재론하고,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작품 속의 지명과 등장인물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 작품의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기반으로 <정시자전>을 단락별로 분석하여,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밝혀보기로 한다.

## 2. 주제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 재론

<정시자전>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락은 식영암이 정시자와 만나 그의 정체를 묻는 대목이다. 이 대목에서는 식영암이 본 정시자의 형상이 묘사된다. 둘째 단락과 셋째 단락은 식영암의 물음에 대한 정시자의 답이다. 둘째 단락에서는 정시자가 석장(錫杖)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과정이 서술된다. 셋째 단락에서는 식영암의 시자(侍者)가 되길 원하는 정시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넷째 단락은 식영암이 정시자의 덕을 칭송하고 그를 각암선사에게 보내는 대목이다. 선행연구에서 주제의식을 논한 대목은 셋째 단락과 넷째 단락을 중심근거로 들고 있다.

먼저 셋째 단락 중 정시자가 주인을 만나기 힘들다고 한 대목을 근거로, 이 작품이 부패한 불교사회의 폐단으로 인해 인재가 등용되기 어려운 상황을 우의(寓意)한 것이라고 파악한 견해를 검토해 보자. 해당 대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김현룡, 釋 息影庵의 正體와 그의 文學, 『국어국문학』 89집, 국어국문학회, 1983, 102면.

저를 부릴 만한 사람이 아니면 감히 저를 사용할 수 없는 까닭에 제가 모실 만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다보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의지할 바를 잃어 사방을 떠돌다가 흙인형에게 비웃음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sup>4)</sup>

이 대목은 정시자가 자신이 모시기에 합당한 주인을 만나길 원하지만 그 인물을 찾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식영암이 지팡이를 짚는 인물의 자격요건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독암선옹의 모과나무 지팡이에 대한 글>(讀庵禪翁木苴木杖說)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는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모두 지팡이를 짚었다. 그런데 노(魯)나라 사람이 지팡이를 수레바퀴에 꿰어 바퀴를 돌린 일로 벼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팡이를 짚지 말라는 법이 정해졌다. 이 법은 숙손(叔孫)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 승려들도 이 법을 준수하여 세 가지 존귀한 것(三達尊: 나이, 벼슬, 덕) 중에 반드시 한 가지라도 갖춘 후에야 지팡이를 짚는다.<sup>5)</sup>

위의 글에서 식영암은 일정한 자격이 되는 자만이 지팡이를 짚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석장은 지팡이 중에서도 고승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정시자가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상황은 석장을 짚을 만한 고승에 대한 자격 조건 및 제한 규정의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주인을 찾지 못하던 정시자는 하늘의 명을 받고 식영암을 찾아온다. 즉 하늘이 인정할 정도의 고매한 덕을 갖춘 고승이어야 석장을 짚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정시자가 주인을 만나기 힘들어한 상황을 근거로 식영암

4) “凡吾職在扶侍，人人使吾，吾賤且勞矣。然非其人莫敢使，故吾所扶侍蓋寡。惟其不遇，失所歸附，流寓海宇，爲土偶所笑，今而久矣。”(息影庵, <丁侍者傳>, 『東文選』第101卷 下 173면) 본고에서 인용하는 『東文選』 저본은 古 木版本(李佑成 教授 家藏本)이다. 인용면수는 이 저본을 慶熙出版社에서 영인하여 발행한 『東文選』 上·中·下권의 면수를 표기하기로 한다.  
5) “古者，貴與賤皆杖，自魯人關轂輓輪，制曰：‘非有爵勿杖’ 繇叔孫始也。我沙門亦遵斯範，必有一於三達尊焉，然後乃敢杖。”(息影庵, <讀庵禪翁木苴木杖說>, 『東文選』第97卷, 下 128면), 인용문의 밑줄은 인용자가 친 것이다. 숙손이 벼슬 있는 자만 지팡이를 짚도록 법을 정했다는 고사는 『禮記正義』의 <雜記>에 보인다. “古者貴賤皆杖。叔孫武叔朝，見輪人以其杖關轂而輓輪者，於是而有爵而后杖也。”(<雜記> 下 第二十一, 『禮記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 1404면.

이 부패한 불교사회를 비판하고 있다고 본 견해는 무리가 있다. 또 식영암은 당시 큰 사찰의 주지를 맡았으며, 왕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고위층 인물에 속했다.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이 식영암에게 준 시에 의하면, 식영암에게 찾아오는 왕실 귀족들의 수레가 오가는 것을 다룰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sup>6)</sup> 식영암은 여타의 글에서 왕실에게 불교진흥을 위해 힘써달라고 하는 한편, 자신이 불공을 드러 왕실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그가 당시 조정을 부패하다고 여겼거나 그가 속한 불교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긴 어렵다.

다음으로 식영암이 불우한 자신을 한탄하고 있다고 본 견해는, 넷째 단락의 식영암이 부르는 노래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노래에는 정시자에게 각암의 뜰로 가라는 것과 자신은 이곳의 박이므로 정시자만 같지 못하다(予匏瓜於此, 不若汝丁)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7)</sup> 위 연구는 이 ‘박’의 뜻을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보고,<sup>8)</sup> 해당 대목의 의미를 식영암이 관직을 얻지 못한 상황을 한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식영암이 실제로 관직을 얻지 못한 불우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식영암의 생몰연대는 1280년경~1360년경으로 추정된다.<sup>9)</sup> 또한 그의 글 중 창작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을 통해 생

6) 식영암이 1346~1349년 사이에 개경에 와 이제현에게 시자(侍子)를 보내어 문명한 적이 있었는데, 이 때 이제현이 시 <息影菴入京, 遣侍者問疾, 戲呈一絕>를 써서 식영암에게 주었다. 이 시의 원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向來飛錫肯相過, 只爲知音世未多, 見說王公爭結軌, 枉煩侍者問沈痾”(지난날 錫杖 짚고 서로 오감은 / 나를 알아주는 벗이 적었기 때문이지요. / 왕공들의 수레 다투어 오간다면 / 번거롭게 侍者 보내 문명하시다니요.) 李齊賢, <息影菴入京, 遣侍者問疾, 戲呈一絕>, 『益齋亂稿』 第4卷, 『韓國文集叢刊』 권2, 533면.

7) “丁哉! 趨而之乎? (口+珽王- )菴之庭, 予匏瓜於此, 不若汝丁.”(<丁侍者傳>, 下 173면)

8) 『논어』(論語) 「양화」(陽貨) 장에 나오는 고사로, 공자가 양화의 벼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자료가 비판하자 공자는 “내가 어찌 박과 같아 매달려 있으면서 먹지 않을 수 있겠는가?”(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라고 대답하였다. 선행연구의 박의 해석은 이 고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9) 식영암의 생몰연대에 대해서는 대략 1270년 전후~1350년경이라는 설과 1300년경 출생설 및 1290년 전후~1360년경이라는 설 등이 있다. 1270~1350년 설은 조수학, 釋 息影庵 文學 研究,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형설문화사, 1975), 389면에 보이며 1300년경 출생설은 김현룡, 앞의 글, 98면에서, 1290년 전후~1360년경 설은 이종문, ‘息影菴 = 德興君’ 說에 대한 再檢討, (『漢文教育研究』 19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2), 530면, 주25에서 주장되었다. 우선

애의 단편들을 재구해 볼 수 있다. 현전하는 그의 작품은 모두 14편인데, 그 중 창작연대가 추정되는 작품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창작연대	작품명
1324년경	<聞大駕還國祝上疏>
1324년경	<復禪源寺疏>
1325년	<誕生元子祝上疏>
1325년	<星變消除疏>, <丁侍者傳> <sup>11)</sup>
1326년	<菊坡說>
1327년	<禪源寺毘盧殿丹青記>
1328년경	<元子上朝祝壽齋疏>
1328년경	<聞化平院君承詔上都祝疏>

위의 표를 참고할 때, 식영암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열 네 작품 중 창작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아홉 편의 작품이 1324~1328년경에 창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생몰연대를 염두에 두면, 이 시기는 40대 중후반에 해당된다. 이 시기 식영암은 임금의 명을 받은 큰 사찰의 주지로 나라를 축수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sup>12)</sup> 또한 그가 남긴 조정의 대사(大事)와 관련된 상소를 통해서, 그가 고려 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시자전>을 창작한 시기 역시 식영암이 가장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펼쳤으

이제현(李齊賢, 1287~1367)과 이암(李崱, 1297~1364), 민사평(閔思平, 1292~1359) 등이 식영암에 대해 쓴 글을 통해 식영암이 이제현과 동년배 혹은 연장자이고, 이암과 민사평보다 연장자임이 추정된다. 이에 따라 식영암의 생년을 대략 1280년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식영암이 이암의 만년인 1362~1364년경까지 이암과 교유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그의 물년을 1360년경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식영암의 생몰연대를 1280년경~1360년경으로 추정하기로 한다.

10) 김현룡, 앞의 글, 84-94면 참조.

11) <정시자전>에 등장하는 각암화상이 1324~1325년에 선원사의 주지를 한 점을 감안해 보면, 작품 중의 “각암화상이 화산으로 간지 2년이 되었다”(珥菴老和尚, 往彼山二年)는 언급을 통해 이 작품의 창작연대를 1325년경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12) “況如弟子之微軀, 謬作主人於巨刹”(息影庵, <聞大駕還國祝上疏>, 『東文選』 第111卷, 慶熙出版社 影印版, 1966, 下권 319면); “職存福利”(息影庵, <誕生元子祝上疏>, 『東文選』 第111卷, 下 319면); “玷于僧席之司香, 鈞音委是名藍.”(息影庵, <元子上朝祝壽齋疏>, 『東文選』 第111卷, 下 321면)

며, 사회적으로도 높은 신분에 있었던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해당 대목의 “박”은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거나 하릴없는 인물”을 비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sup>13)</sup> 이에 따라 식영암이 관직을 얻지 못했다고 한탄했다는 해석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정시자전>에 대한 주제의식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제 <정시자전>의 주제의식을 고찰하기에 앞서 <정시자전>의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을 짚어 보기로 한다.

먼저 둘째단락에서는 정시자의 성장과 관련된 여러 고사가 등장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정시자가 진나라에서 범씨(范氏)의 가신이 되어 옷칠을 하였다는 것은 예양(豫讓)의 고사를 가져온 것이고, 당나라에서 조로(趙老)의 문인이 되어 철취(鐵嘴)의 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고승(高僧)이었던 조로가 말을 잘해 ‘철로 된 주둥이’(鐵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고사를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정시자가 정도(定陶)에서 정삼랑(丁三郎)을 만나 정씨 성을 받게 된 일에 대해서는 배경고사가 알려진 바 없다. 그렇다면 왜 하필 정시자는 정도에서 정씨 성을 부여받게 된 것일까? 정씨 성의 기원 중 하나로,姜태공(姜太公)이 제(齊)나라의 제후로 임명된 후 그 아들 급(伋)이 정공(丁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고, 이후 후손들이 성을 ‘정’(丁)씨로 삼았다는 설이 있다.<sup>14)</sup> 정씨 일족들은 급(伋)을 시조(始祖)로 높이고 제나라가 있었던 산둥성(山東省)을 발원지로 삼아 산둥성 정도현(定陶縣) 일대에 많이 살았다고 한다. 이로 볼 때, 정시자가 정도에서 정씨 성을 받는 이야기는 정씨 성의 유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넷째 단락에서 식영암은 정시자에게 ‘화도(華都)에 다른 화산(花山)이 있고 그 화산에 각암화상<sup>15)</sup>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sup>16)</sup>고 한다.

13) 이 대목에 대해 “자기는 몸을 움직이지 못해 소용없으니 정시자더러 다른 사람에게 가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 지팡이야말로 미혹한 이들을 인도해주지만 자기는 따르지 못한다는 말일지도 모른다.”(조동일, 『제 4판 한국문학통사』 2, 지식산업사, 2006, 125면)라고 본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박”의 의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파악되며, 식영암은 정시자가 각암화상을 찾으러 떠나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점에서 절에 매여 있는 자신보다 낫다고 한 것이다.

14) “西元前十一世紀，西周分封諸侯，姜太公望受封於齊，其子伋，死後諡號爲丁公。其後遂以丁爲氏。”(『通志·氏族略』)

15) ‘각암화상’(□+珽+王-、)菴和尚)의 ‘□+珽+王-、’자는 음과 훈이 미상인데, 선행연구에서는

여기 나오는 ‘화도’와 ‘화산’은 어디이며, ‘각암화상’은 누구일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선원사는) 고종 때에 진양공(晉陽公)께서 창건하셨습니다. 본조(本朝)에 이르러 화도(花都)를 폐지하니 버려져서 언덕이 되었지만, 선제(先帝)께서 이 절만은 온전히 두고 토지를 주셨으므로 동방 승려들이 불도를 닦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선원(禪源)’이라는 칭호가 후대에까지 내려갔는데, 원종(元宗)의 원찰(願刹: 왕실의 명복을 비는 법당)이 된 것은 세조(世祖)의 명(命)에서 비롯되었습니다.<sup>17)</sup>

위 예문은 식영암의 <선원사를 복원하는 것에 대한 상소>(復禪源寺疏) 중의 일부이다. 밑줄 친 대목에 ‘화도’(花都)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다. 본조에서 화도를 폐지하자 버려져 언덕이 되었다는 것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도읍을 천도한 일을 말한다. 고려는 몽고의 침략을 받아 1232년(고종19) 강화도(江華島)로 도읍을 옮긴 후, 몽고에게 굴복하여 1270년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다시 천도하였다. 위 예문에 나오는 ‘화도’라는 지명은 강화도를 뜻한다.<sup>18)</sup> 그렇다면, 이 화도(花都)와 <정시자전>에 등장하는 ‘화도’(華都)는 일치하는 것일까? 다음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대덕(大德) 기사년(己巳年, 1305)<sup>19)</sup> 가을, 절의 명당(明堂)과 불묘(佛廟)가 타 버렸다. 그리고 몇 해 뒤에 복구되었으나 단청을 올리지 못하고 흙과 나무가 그대로라 매우 남루하였다. 주지가 세 번 바뀌기까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는데, 각암화상이 절에 들어오자 자신의 문인(門人)인 전인(全忍)에게

‘쌍옥 각’(瑤)자의 음을 취하였다. 본고 역시 ‘각’의 음을 취하기로 한다.

16)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華都復有山, 花其名者, 各(口+瑤王-、)菴老和尚, 住彼山二年, 山雖同名, 人不同德. 天命子往者, 非于此, 蓋于彼也. 子往矣.”(<丁侍者傳>, 下 173면)

17) “有自高王之代, 云是晉公所基. 本朝常廢是花都, 棄爲九龍, 先帝乃完茲柰苑, 留與土田, 爲東方釋土之游場. 斯以禪源稱號, 歷下代元皇之願刹, 始於世祖制音.”(息影庵, <復禪源寺疏>, 『東文選』第111卷, 下 320면)

18) 강화도가 도읍지였기 때문에 ‘花都’라 칭한 것이다.

19) 원문에는 己巳로 되어 있으나, 大德年間에는 己巳年이 없고 乙巳年만 있어 ‘己巳’는 ‘乙巳’의 오키로 생각된다. 乙巳年으로 볼 경우 1305년이다.

돈을 맡겨 송나라에 가서 채색을 사오게 하였다. 전인이 태정(泰定) 갑자년(甲子年, 1324) 가을에 돌아와, 을축년(乙丑年, 1325) 봄에 서편과 동편의 벽에 마흔 명의 신(神)의 화상을 그렸는데 매우 기묘하였다.<sup>20)</sup>

위 예문은 식영암의 <선원사 비로전의 단청에 대해 쓴 기문>(禪源寺毘盧殿丹青記)의 일부 대목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각암화상은 태정(泰定) 갑자년(1324)과 을축년(1325)에 선원사 주지를 한 승려로서 선원사 단청을 개수하는 일을 주관하였다.<sup>21)</sup> 각암화상이 있던 선원사의 위치는 강화도호부(江華都護府)에서 남쪽으로 8리 떨어진 지점으로,<sup>22)</sup> 화산(花山)과 3리 거리에 있다.<sup>23)</sup> 즉 선원사와 화산은 약 1km이내의 가까운 위치에 있으므로, 각암화상이 선원사에 거처하는 상황을 두고 그가 화산에 거처한다고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시자전>에 나오는 각암화상 역시 화산에 거처하는 인물이므로, <정시자전>의 각암화상과 위 예문에 등장하는 각암화상의 정보는 일치된다. 따라서 각암화상이 있다는 화도(華都)는 강화도를 의미한다. 즉 “花都”와 “華都”는 동일하게 강화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정시자전>에 등장하는 강화도의 화산은 현재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에 있는 바,<sup>24)</sup> 식영암은 정시자에게 강

20) “大德己巳秋，寺明堂佛廟災，既間歲乃復，而金碧未施，土木陋甚，更主法三代，莫克嚴校，各(口+珥王-丶)菴和尚入院，委貨於門人全忍者，適宋賢丹騰，忍歸泰定甲子秋，畫乙丑春西東壁四十神衆像，益奇妙。”(息影庵，<禪源寺毘盧殿丹青記>，『東文選』第65卷，中 205면)

21) 각암화상을 자인국사(1215~1286)로 추정할 견해가 있는데, 행적으로 미루어볼 때 합당하지 않다. (황인규, <고려 후기 禪源寺의 創建과 禪僧들> 『慶州史學』 제21집, 경주사학회, 2002, 76면) 각암선사가 1324년 선원사 주지를 한 것과 자인국사의 생몰연대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이다.

22) 강화도 선원사의 현 위치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692-1번지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이곳은 1976년 동국대학교 강화도학술조사단의 조사 및 주민들의 증언과 지리적 특성에 의해 1977년 사적 제259호 선원사지로 비정되었고 1996~2000년에 걸쳐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東國大學校 博物館·江華郡 편, 『史跡 259號 江華 禪源寺址 發掘 調査 報告書』(東國大學校 博物館, 2003), 37-41면 참조.

23) “화산은 강화도호부에서 남쪽으로 5리 되는 지점에 있다. (...) 선원사는 옛날 강화도호부에서 남쪽으로 8리 되는 지점에 있다.”(花山，在府南五里。 (...) 禪源寺，古基在府南八里)(<江華都護府>，『京畿』，『新增東國輿地勝覽』第12卷，東國文化社 影印版，1958, 218-221면)

24) 강화도 화산이 표기된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707년 편찬된 『朝鮮八路地圖』이다. 그리고 19세기 초에 편찬된 『東國輿圖』에 이르기까지 강화도 지도에 화산이 표기되어 있다.(강화군 편, 『江華 옛 地圖』, 강화군, 2003) 66, 156면 참조. 최근 채집된 선원면의 구비 설화 중 <중국 지관보다 나은 혈구산 머느리>에 화산의 위치가 구술되어 있는데, 옛 지도에 표기된

화도 화산 선원사에 있는 각암화상에게 가라고 한 것이다. 식영암은 실제로 강화도 선원사에 머문 일이 있는데,<sup>25)</sup> 이로 미루어 식영암이 강화도 선원사에 머무는 동안 각암화상과 교류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암화상의 덕을 알게 되어 <정시자전>에 그를 등장시킨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식영암이 거쳐하고 있는 화산은 어디에 위치한 것일까? 먼저 <정시자전>의 “화도에 또 산이 있으니, ‘화’가 그 이름이다”<sup>26)</sup>라는 대목에 의거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식영암이 거쳐하는 화산이 강화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이다. 최자(崔滋, 1188~1260)의 <서도(西都)·북경(北京)·강도(江都)를 읊은 부>(三都賦)에 강화도의 두 ‘화’(華)가 문지방이 된다는 어구가 나오는데, 이는 강화도에 두 개의 화산이 있었다고 추정할 근거가 된다.<sup>27)</sup> 따라서 식영암이 거쳐하는 화산이 강화도의 모처에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sup>28)</sup> 다른 하나는 식영암이 거쳐하는 화산이 강화도 이외의 장소에 있는 경우이다. 식영암의 <월등사 죽루의 대나무에 대해 쓴 글>(月燈寺竹樓竹記)에서 그가 “화산 월등사”에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sup>29)</sup> 이 월등사가 있는 화산은 전라남도 순천에 위치해 있다. 요컨대 식영암이 거쳐한 화산의 위치를 정확히 비정하기는 어렵지만, 강화도와 전남 순천에 있는 화산 중의 하나로 좁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화도와 화산, 각암화상의 정체를 살펴보았다. 각암화상이 강화도 선원사에 실존했던 주지로서 식영암과 교류한 사실은, <정시자전>에 식영암의 실제의 삶과 창작된 허구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으로 <정시자전>의 주제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재론해보고,

화산의 위치와 일치한다.(김문태, 『강화구비문학대관』, 인천가톨릭대학교, 2001), 476면 참조.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대문리, 선원면에서 바로 넘어가는 고개 있어요, (···) 이제 거기서 조금 가면은 꽃피뿌리라고 그러는 산이, 이 혈구산 아래 내려온 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꽃피뿌리가 바로 화산이다.

25) 息影庵, <鐵城府院君李文貞公墓誌銘>(『東文選』 第127卷, 下 533-534면) 참조.  
26) “華都復有山, 花其名者”(息影庵, <丁侍者傳>, 『東文選』, 下 173면)  
27) “兩華爲闕”(崔滋, <三都賦>, 『東文選』 第2卷, 上 17면).  
28) 강화도에 있는 또 다른 화산의 위치는 미상이나, 최자의 <三都賦>에 따라 추정해 볼 때 선원사가 있는 화산의 옆에 있는 산이 아닌가 생각된다.  
29) “華山月燈寺西南隅, 有竹樓, 樓西阿, 有竹數, 千竿挺立, 環寺後, 林林如也.”(<月燈寺竹樓竹記>, 中 307면)

‘화도’와 ‘화산’ 및 ‘각암화상’의 정체 등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제 다음장에서 식영암의 여타 작품들을 고찰하면서 <정시자전>의 주제의식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 息影菴의 사물인식과 <丁侍者傳>

식영암은 여러 글에서 사물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먼저 그의 <국화 언덕에 대한 설>(菊坡說)을 살펴보자.

군자는 사물을 대할 때에 반드시 자신에게 합하는 것이 있는 연후에 취한다. 내가 전경(全卿)이 소중하게 여기는 바가 국화라는 것을 들으니 그가 과연 어진 것을 알겠다. 대개 국화라는 꽃은 그 빛이 누르니, 내가 전경의 도(道)가 바르고 중심이 있어 편벽되지 않은 것을 알겠고, 국화의 향기가 멀리 풍기니 전경의 덕이 사방으로 통달하여 가리기 어려운 것을 알겠고, 국화가 봄과 여름에 피지 않고 반드시 늦가을에 피니, 전경이 양수(陽數)에 응해 세상에 나온 군자임을 알겠다. 무릇 군자는 독초 옆에서 노닐지 않고 쓸모없는 나무 밑에서 쉬지 않는 법이니, 그렇다면 전경이 노닐고 쉴 곳이 국화 언덕(菊坡)이 아니고 어디이겠는가.<sup>30)</sup>

예문은 식영암이 복암 휴공(復菴休公)과 뒤뜰에서 국화를 구경하며 대화하는 대목이다.<sup>31)</sup> 밑줄 친 부분에서 그의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그는 사물을 대할 때 자신에게 합당한 것을 찾아 취해야 하며, 이런 연유로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물을 통해 그 사람의 덕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사물의 덕과 그 사물을 만난 사람의 덕은 별개의 것

30) “君子之於物，必有合於己者，而后取之。吾聞全卿之所愛者菊，知全卿之果賢也。夫菊之爲花其色黃，吾知全卿之道，中正而不頗也；菊之臭馨，吾知全卿之德，旁達而難掩也；菊之開不于春夏，必於秋季，吾知全卿之出，應陽數而爲君子人也。夫君子不遊于毒草之傍，不息乎惡木之下，然則全卿之所遊息，非菊坡而何？”(息影庵，<菊坡說>，『東文選』第97卷，下 127면)

31) “三年丙寅菊節，與復菴休公，在後庭看菊，休曰：‘吾友肅山全卿，居城中頗愛菊，因名其居爲菊坡。全卿，賢君子。’”(〈菊坡說〉，下 127면)

이 될 수 없으며, 서로의 덕이 서로 걸맞은 경지에 이를 때 비로소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사물의 덕이란 곧 사물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식영암은 국화의 속성과 국화를 좋아하는 이의 도(道)와 덕(德), 사람됨(爲人)을 연관시키며 두 주체의 덕이 잘 어울리고 있음을 설파한다. 또한 그는 덕이 합치되는 사물과의 만남을 지우(知遇)를 만나는 것에 비할 만큼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을 보자.

오직 이 지팡이만은 우리 공이 아니면 누구에게 마땅하겠으며, 오직 우리 공께서는 이 지팡이가 아니면 어찌 거동하시겠는가. 물건은 돌아갈 곳이 있으니 오직 덕을 따른다. 아, 내 삶 가운데 짝이 드물었으니, 이 지팡이의 지우(知遇) 있는 것만 못하구나.<sup>32)</sup>

이 예문은 식영암의 <독암선옹의 모과나무 지팡이에 대한 글>의 일부이다. 식영암은 도가 높은 독암선옹이 귀한 지팡이를 얻은 것을 보고 독암선옹과 지팡이의 만남이 매우 특별하다는 점을, “오직”[惟]이라는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사람과 사물이 서로의 덕이 합치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그 만남을 서로를 알아주는 지우(知遇)의 관계로 인식한다.

자신과 덕이 합치되는 사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선 사물의 덕을 알아야 하며, 사물의 덕을 알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사물의 속성을 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사물의 속성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점은 그의 다른 작품인 <월등사 죽루의 대나무에 대해 쓴 글>에서 볼 수 있다. 식영암은 이 작품에서 노승(老僧) 및 여러 객들과 함께 대나무 수천 그루를 보며 대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를 논하고 있다.<sup>33)</sup>

32) “惟茲杖非吾公孰宜? 惟吾公非茲杖曷儀? 凡物有所歸, 惟德是依. 噫! 余生之寡偶, 不如茲杖之有遇.”(<續庵禪翁木苴木杖說>)

33) “華山月燈寺西南隅, 有竹樓, 樓西阿, 有竹數千竿, 挺立, 環寺後, 林林如也. 主老大禪候, 嘗酷愛之. 一日會客樓上, 主老指竹而謂客曰: ‘二三子, 盍各言竹之美?’”( <月燈寺竹樓竹記>, 中 307면)

식영암은 말하였다.

“그 맛이나 재목, 혹은 운치나 질조로써 대나무를 좋아한다면, 이것은 이른바 쪽정이만을 얻고 정수는 버리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처음 나올 때부터 쭉 빼어난 것을 보면, 먼저 깨닫는 계기[先悟]는 갑작스럽게 발현됨을 알 수 있으며, 대가 늙을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보면 뒤에 도를 닦는 짓[後修]은 차츰차츰 증진해 나아가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대의 속이 빈 것을 통해 사람의 성품이 공허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대의 외양이 곧은 것을 가지고 실상(實相)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의 뿌리가 용(龍)으로 변화하는 것은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비유가 되며, 죽실(竹實)이 봉황(鳳)의 먹이가 되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이 대를 좋아하는 까닭은 아마도 저런 것 때문이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일 테지요.”<sup>34)</sup>

식영암은 대의 맛이나 재목의 쓰임 및 운치나 질조 때문에 대를 좋아하는 것은 쪽정이만 취하고 정수를 버리는 것이며 대의 속성을 통해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견해로 볼 때, 대를 식용으로 삼거나 대의 운치를 숭상하는 일은 사람의 입장에서 대를 이용하거나 사람의 주관으로 만들어진 대의 이미지를 대에 덧씌우는 일이다. 이는 인간이 사물의 겉모습만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사람은 사물에게 물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사물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거나 고양되기는 쉽지 않다.

대의 속성을 통해 불성을 터득하는 원리인 “선오후수”(先悟後修: 도를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음)를 자각하는 것은, 사람이 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자아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사람은 대의 뿌리가 용으로 변하는 것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대의 열매가 봉(鳳)의 먹이가 되는 것을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는 사람이 대에 대한 인식을 바

34) “息影庵曰: ‘夫以味、以材、以致、以操而愛之竹, 茲謂得其粗, 遺其精者也, 則見茲竹生而便秀, 知先悟之機頓進也; 見茲竹老而益勁, 知後修之力漸增也; 以竹之虛其中, 觀乎空性; 以竹之真其外, 譚乎實相; 笏之化龍, 成佛之喻; 복(竹+復)之饒鳳, 利人之道, 公之愛之, 非于彼, 盖于此也.’”(〈月燈寺竹樓竹記〉, 中 307면)

탕으로 도를 깨우쳐 불법(佛法)을 얻게 된 것으로, 다시 말해 사물의 본질을 깨달음으로써 자아의 본성에 대한 인식이 고양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식영암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은 사람이 파악한 사물의 외양이나 선입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내재하고 있는 본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는 유가적 인본주의, 즉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태도와는 달리 인간과 사물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더해 식영암이 국화와 대나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에 그가 직접 국화와 대나무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식영암이 국화와 대에서 덕성을 찾아내는 과정은 그가 뒤뜰에서 국화를 보고 죽루(竹樓)에서 대나무를 감상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그는 사물을 직접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그 사물의 속성을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그 사물의 속성과 사람의 덕성을 연관시켜 사물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아의 덕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자 한다. 식영암의 사물을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이용가치에 따라 사물을 평가하거나 심미적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것과 차별된다. 그는 사물의 본질에 다가서려 할 때, 사물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저에 깔고 있다. 사물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의 덕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식영암에게 사물은 수도(修道) 과정의 벗이나 스승과 같은 존재가 된다.<sup>35)</sup>

이제 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시자전>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정시자전>의 서두를 살펴보자. 이 단락은 식영암과 정시자가 만나는 대목이다.

입동(立冬)날 어두운 새벽에 식영암이 암자 안에서 벽에 기대어 조는데, 바깥에서 누군가 뜰에 절하며 말하는 것이 들렸다.

35) 이러한 식영암의 사물인식은 유가적 사물인식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물인식의 차이는 일차적으로 식영암이 승려였다는 점, 즉 그가 불가의 사물인식에 토대를 두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식영암의 사물인식은 불가의 사물인식을 토대로 독자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가령 사물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본성을 파악하려 하며, 주제와 덕성이 합치되는 사물과의 만남을 바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물인식의 차이는 <정시자전>이 유가적 사물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 여타 가전과 비교하여 내용과 형식면에서 차별성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식영암의 사물인식은 <정시자전>의 분석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새로 정시자(丁侍者)가 뵙습니다.”

식영암이 기이하게 여기며 나가 보니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몸은 가늘고 길쭉하며 빛은 검고 빛났고, 붉은 빨은 높이 솟아 싸우는 소 같았고, 눈은 툭 튀어나와 부릅뜬 것 같았다. 그는 기우똥 기우똥 들어와 꺾꺾하게 섰다.

식영암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이윽고 불러 물었다.

“그대는 앞으로 오시오. 그대에게 우선 물을 것이 있소. 그대는 왜 이름이 정(丁)이고, 어디서 왔고, 와서 무엇을 하려고? 또 내가 평소에 그대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그대가 시자(侍者)라 칭하는 까닭은 무엇이오? 할 말이 있소?”<sup>36)</sup>

예문에서 식영암은 정시자를 가까이 불러 그가 찾아온 이유와 초면에 시자(侍者)라고 칭하는 이유를 묻고 있다. 앞서 식영암이 국화와 대에 대해 쓴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식영암은 사물을 대할 때 직접 그 대상을 대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상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정시자와의 만남 역시 이와 동일하여, 식영암은 정시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사물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유를 파악하고자 한다. 식영암은 사물을 존중하는 자세로 관계를 시작하며, 상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다.

다음은 정시자의 대답이다.

식영암의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정(丁)은 얼른 뛰어 나와서는 천천히 삼가며 대답하였다.

“옛날의 성인(聖人)으로 소머리를 한 이가 포희(包犧)인데 그 분이 저의 아버지이고, 뱀의 몸을 한 이가 여와(女媧)인데 그 분이 저의 어머니입니다. 저를 낳고 수풀 속에 버려둔 채 거두지 않았습시다. 저는 서리와 우박을 맞으면 시들어 죽어가다가도 비바람의 은혜를 입고는 생기 있게 되살아나, 추위와 더위를 수백 번 겪은 뒤에 어른이 되었습니다.

36) “立冬日味爽, 息影庵在菴中, 倚牆睡, 聞外有庭拜問訊聲云: ‘新到丁侍者參.’ 怪而出視之, 有人焉, 形纖而長, 色默而光, 赤角高撐, 若觚鬣, 玄睛挺露, 若隕(貝+眞)怒(奴+目), 彳于而入, 子子而立. 息影庵始而瞿然, 頃而呼曰: ‘子來前, 姑有問於子. 且子何名爲丁, 何自而來, 來何爲乎? 抑吾素不識子面, 子而稱侍者, 何以? 豈有說乎?’”(〈丁侍者傳〉, 下 172-173면)

여러 대를 지나 진(晉)나라에 이르러 세속에 들어가 범씨(范氏)의 가신이 되어 비로소 몸에 옷칠하는 기술을 배웠으며, 이후 당나라에 이르러 승려로서 조로(趙老)의 문인이 되어 ‘철취’(鐵耨)라는 호(號)를 얻었습니다. 그 뒤에 정도(定陶) 지방을 유람하다 길에서 정삼랑(丁三郎)을 만났는데, 그가 저를 유심히 보고, ‘자네의 형상이 위는 가로지르고 아래는 내리 그었으니, 마땅히 내 정(丁) 성을 자네 성으로 주겠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좇았고, 이 정(丁) 성을 고치지 않으려 합니다.”<sup>37)</sup>

이 대목의 밑줄 친 부분에서 정시자가 식영암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하려는 태도를 볼 수 있다. 정시자는 식영암에게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식영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어나온다. 이와 동시에 그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진솔하게 자신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사물이 식영암에게 다가오는 방식을 볼 수 있다. 정시자는 매우 간절하게 식영암이 자신을 받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의 전 생애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의인화된 사물의 이 같은 태도는 식영암이 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영암이 사물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때, 사물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예문을 통해 식영암이 사물의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물의 입장과 시각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정시자는 자연 상태에서 오랜 세월 고초를 겪어 재목이 된 뒤, 여러 인물을 만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석장의 모습을 갖추가고 호칭을 얻게 된다. 이는 사물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모습을 갖추고 이름을 부여받는 것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 있는 대상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성장과정이 사물의 시각에서 기술되고 있다. 이 대목은 대다수 가전의 선계(先系)와 사적(事蹟), 후계(後系)에 해당된다. 가령 이곡(李穀, 1298~1351)의 <죽부인전>(竹夫人傳)에서는

37) “言未既，丁遂奮躍以進，徐其辭而謹對曰：‘古初有聖人，其首牛者曰包犧，吾考也；其身蛇者曰女媧，吾妣也。生吾林中，棄而不育，霜雹暴之，則若粹而死；而風雨恩之，則若榮而生，而歷寒暑千百而后，長而成人材。綿代迄于晉，俗而爲范氏家臣，始學漆身之術，降于唐，僧而爲趙老門人，又加鐵耨之號，于后遊定陶，遇丁三郎於塗，熟瞻而謂曰：‘見子形，上橫下豎，宜以吾姓累汝姓。’吾固當因而革焉。”(<丁侍者傳>，下 173면)

해당 대목이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부인의 성은 죽(竹)이고 이름은 빙으로 위수(渭水)가에 살던 운(簣)의 딸이었다. 그 계통은 창량 씨(蒼筤氏)에서 나왔는데, 그 선조가 음률을 알았기 때문에 황제(黃帝)가 발탁하여 음악을 다스리게 하였다. 우순(虞舜) 시절의 소(簫)도 마찬가지로 그 후손이다.<sup>38)</sup>

위 예문은 대다수 가전에서 선계가 서술되는 방식으로, 3인칭 시점과 나열식 서술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시자전>은 의인화된 사물의 목소리를 통해 성장과정이 기술된다. 3인칭 입장에서 나열식으로 서술되는 선계 대목은 사물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인식했는지를 드러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비해 <정시자전>의 경우, 정시자가 체험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가 겪었던 고난과 자신의 성을 아끼는 마음 등이 실감나게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사물의 입장에서 서술되는 <정시자전>의 서술방식은 사물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작가의 고민과 일정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어 정시자는 자신의 직분과 식영암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 밝힌다.

대개 저의 직분이 사람을 붙들어 모시는 것인데, 사람마다 저를 부리니 저는 매우 천하고 고달픉니다. 그러나 저를 부릴 만한 사람이 아니면 감히 저를 사용할 수 없는 까닭에 제가 모실만한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다보니 주인을 만나지 못하여 의지할 바를 잃어 사방을 떠돌다가 흠인형에게 비웃음을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다.<sup>39)</sup> 그런데 어제 하늘이 저의 기구한 운명을 불쌍히

38) “夫人姓竹，名憑，渭濱人簣之女也。系出於蒼筤氏，其先識音律，黃帝采擢而典樂焉。虞之簫亦其後也。”(李穀, <竹夫人傳>, 『稼亭集』 권1, 韓國文集叢刊本)

39) 흠인형에게 비웃음을 받았다는 것은 『戰國策』 卷十「齊策」三의 <孟嘗君將入秦>에 나오는 흠인형과 나무인형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이 고사는 나무인형이 흠인형에게 그대는 비가 오면 흠이 될 것이라고 하자, 흠인형이 자신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나, 나무인형은 정처 없이 표류할 것이라고 대답한 내용을 담고 있다(劉向, 『戰國策』, 里仁書局, 1982, 上冊, 374면 참조). 여기서는 정시자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상황을 흠인형에게 비웃음을 받았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

여겨 명을 내리셨습니다.

“너를 화산(花山)에 있는 이의 시자(侍者)로 명하니, 가서 직분을 받들고 오직 스승을 삼가 섬겨라.”

저는 명령을 듣고 기뻐서 뛰며 외다리로 왔습니다. 장로(長老)께서는 저를 용납하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sup>40)</sup>

위 대목에서 정시자는 부림 받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천하고 고달픈 일임에도 버려지기보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합당한 인물을 능동적으로 찾고 있으며, 하늘에서 그 인물을 명하자 기뻐하며 뛰어온다. 또 정시자는 부릴 만한 사람이 아니면 감히 그를 부릴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정시자가 주인을 만나 그를 모시는 것은 자신을 주인에게 의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의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식영암은 사물과 사람이 서로 합치되는 덕을 통해 자신의 짝을 만나게 되며, 그 짝을 만나는 일은 지우(知遇)를 만나는 것에 필적할 만큼 매우 소중한 일이라고 인식한다. 정시자의 주인에 대한 인식은 곧 작가 식영암의 사물인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식영암은 정시자의 말을 통해 사물과 인간의 만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sup>41)</sup>

<정시자전>과 동시대에 창작된 다른 가전과 비교해볼 때, <정시자전>은 의인화된 사물의 시각과 입장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으며 사물과 인간의 관계가 보다 긴밀하고 구체적이다. 가령 이곡의 <죽부인전>에서는 대나무와 소나무의 관계가 나오고 있으며, 이첨(李詹, 1345~1405)의 <저생전>(楮生傳)에서는 종이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과의 관계가 나열된다. 그에 비해 <정시자전>은 대상물인 지팡이와 특정 인물인 작가 자신과의 관계가 설정되고 있다.

식영암은 자신의 물음에 대한 정시자의 답을 통해 정시자의 인생 역정과

40) “凡吾職在扶侍，人人使吾，吾賤且勞矣。然非其人莫敢使，故吾所扶侍蓋寡。惟其不遇，失所歸附，流寓海宇，爲士偶所笑，今而久矣。昨天哀吾奇，命之曰：‘命汝爲花山侍者，其往奉職，師事之惟謹。’吾聞命欣躍，隻脚以來。願長老容受。”(<丁侍者傳>，下 173면)

41) 송병렬, 의인체 산문의 담론 방식과 그 특징, 『동방한문학』 26, 동방한문학회, 2004), 472-479면 참조.

소명의식을 알게 된다. 그는 처음에는 생소했던 사물의 유래와 그 용도를 듣는 가운데 사물의 입장에서 사물의 연륜과 존재방식을 인식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물의 덕을 깨닫는다. 다음을 보자.

식영암이 말하였다.

“덕스럽도다. 정상좌(丁上座)여, 옛 성인이 남긴 몸이로다. 뿔이 무너지지 않음은 장(壯)이요, 눈길을 회피하지 않음은 용(勇)이요, 몸에 옷칠하여 은혜와 원수를 생각함은 신(信)과 의(義)요, 쇠주둥이로 민첩히 묻고 대답함은 지(智)와 변(辯)이요, 붙들어 모심을 직책으로 함은 인(仁)과 예(禮)요, 돌아가 의지할 것을 택함은 정(正)과 명(明)이라. 이 여러 미덕을 모아 길이 살아서 늙거나 죽지 아니하니, 성(聖)의 경지가 아니면 곧 신(神)의 경지일 걸세. 어찌 내가 그대를 바라겠소? 나는 이 중 하나도 가진 것이 없으니, 그대의 친구가 되는 것도 마땅하지 않거늘, 하물며 스승이 될 수 있겠소?

화도(華都)에 다른 산이 있는데, 화(花)가 그 이름이요, 각암화상이 그 산에 머무른 지 이미 2년이 되었다오. 산은 비록 같은 이름이나 나와 각암화상의 덕은 차이가 나니, 하늘이 그대에게 가라고 명한 곳은 이곳이 아니라 그 곳일 거외다. 그대는 그곳으로 가오.”

식영암은 이어 노래를 불러 그를 전송하였다.

“정(丁)이여, 성큼성큼 각암의 뜰로 가시오. 나는 이곳의 박이니 그대 정(丁)만 못하네.”<sup>42)</sup>

이 대목에서 식영암은 정시자의 벗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하며 자신에게 없는 미덕을 지닌 정시자를 높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식영암은 자신이 사물보다 못하다는 겸손한 태도를 바탕으로 사물의 본질에 내재된 덕성을 드러낸다. 그는 정시자의 본질을 인식하는 동시에 자신을 반성

42) “息影庵曰: ‘德哉! 丁上座, 古聖之遺體也. 角不崩, 壯也; 目不逃, 勇也; 漆身以念恩讎, 信也義也; 鐵嘴以捷問對, 智也辯也; 職扶持, 仁也禮也; 擇歸附, 正也明也; 集斯衆美, 長生不死, 非聖即神, 烏可企也? 予不敢有一於此, 不當子之所友, 況所師乎! 華都復有山, 花其名者, 各(口+珽王- )菴老和尚, 住彼山二年, 山雖同名, 人不同德. 天命子往者, 非于此, 蓋于彼也. 子往矣.’ 因爲歌而送之曰: ‘丁哉! 趨而之乎各(口+珽王- )菴之庭, 予匏瓜於此, 不若汝丁.’”(〈丁侍者傳〉, 下 173면)

하며 자신이 추구하는 미덕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킨다. 즉 사물의 속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통해 자아의 덕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는 것이다. 비록 식영암은 정시자와 표면상으로 이별을 취했으나, 식영암이 정시자의 덕을 알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또 정시자의 덕을 통해 식영암이 자신의 덕의 경지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만남은 수도(修道) 과정에서 서로를 알아준 벗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이 단락은 가전의 평결부에 해당하는데, 이 평결을 동시대 가전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청강사자현부전>(淸江使者玄夫傳)의 평결과 비교해보면 그 차별된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 을 보자.

사신(史臣)은 이른다.

‘지극히 미묘한 것을 살피고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 방비하는 일은 성인(聖人)도 혹 차질이 있기 마련이다. 현부(玄夫)의 슬기로운 재주로도 예저의 속임수를 막아내지 못하였고, 더욱이 두 자식이 삶기어져 죽는 것을 구하지 못하였으니, 하물며 그 나머지가 더 이를 게 무엇이랴?’<sup>43)</sup>

<청강사자현부전>의 위 평결부분은 대상물의 생애를 서술한 본전 부분과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데 비해, <정시자전>의 평결부는 식영암과 정시자와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또 <청강사자현부전>의 평결의 경우 제 3자의 시각에서 대상의 단점이 논평되고 있음에 비해, <정시자전>의 평결은 대상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그 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립된 평결부는 대다수 가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정시자전>의 평결부분이 대다수 가전의 평결과 다른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물의 덕이 적극적으로 칭송된다는 점은, 식영암이 대상물을 태하는 태도가 대다수 가전의 입전 태도와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sup>44)</sup>

43) “史臣曰, 察至微防未兆, 聖人容或有差. 以玄夫之智, 不能杜豫且之謀, 又不救二子之烹, 況其餘哉.” (李奎報, <淸江使者玄夫傳>, 『東國李相國集』 卷20, 韓國文集叢刊本)

44) <정시자전>의 서술방식이 여타의 가전과 다르다는 점은, 김윤아, 「『정시자전(丁侍者傳)』 연구 : 서술상의 특징을 중심으로」(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품 전반에 작가 자신이 등장하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가가 가전에 등장하는 것은 여타 가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설정이다. <정시자전>에서는 작가 자신이 직접 등장하여 일대일로 사물과 대면함으로써 3인칭으로 서술된 여타 가전보다 대상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사물에 대해 갖는 생각과 감정이 진솔하게 전달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식영암은 사물과의 대면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덕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식영암의 국화와 대를 대상으로 한 작품 서두에 사물과의 대면이 나타나고 있는 점 역시 이와 통한다고 하겠다.

요컨대 <정시자전>에서 식영암은 사물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사물을 자신보다 미덕이 많은 존재로 인정하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사물의 속성과 자신의 덕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정시자전>의 주제의식은 식영암의 사물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즉 <정시자전>에서 식영암은 사람과 사물이 맺을 수 있는 이상적이고 진정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자아의 덕성에 대한 인식까지 확장하는 경지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상적 전통에서 확인되는 생태적 관점은 만물이 근원적으로 평등하고 인(人)과 물(物)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물(物)의 관점에서 인간을 보아 궁극적으로 인과 물의 조화와 공존을 추구한다.<sup>45)</sup> 식영암의 <정시자전>을 통해 우리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물(物)을 존중하며, ‘물’에 대한 존중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생태적 지혜’를 볼 수 있다.

#### 4. 결 론

이상으로 식영암의 사물인식과의 관련 하에 <정시자전>을 분석하여, 그가 사물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사물의 속성과 존재방식을 파악하고 그 덕성을 이끌어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시자전>에서 식영암은 사물의 본질

45) 박희병, 「한국의 사상적 전통과 생태적 관점」(『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16면.

을 꿰뚫어보고 자신보다 미덕이 많은 존재로서 사물을 존중한다. 또한 사물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덕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있다.

<정시자전>에서 나타난 사람과 사물이 관계 맺는 양상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시사적인 면을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만을 주체로 사고하고 인간 이외의 대상을 객체로 파악하여 동식물 및 사물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고가 만연해 있다. 물론 인간중심적 사고는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물질적 삶을 윤택하게 만든 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도하게 인간의 입장만을 생각한 결과,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인간의 감정이 황폐화되어 사회의 존속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르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식영암이 사물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들의 덕성을 파악하며 지우(知遇)의 관계를 맺은 것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편,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지적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徐居正 等 編, 『東文選』 上·中·下, 影印版, 慶熙出版社, 1966.  
 徐居正 等 編, 『(新增) 東國輿地勝覽』, 影印版, 東國文化社, 1958.  
 李齊賢, 『益齋亂稿』, 韓國文集叢刊本, 民族文化推進黨, 1990.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韓國文集叢刊本, 民族文化推進黨, 1990.  
 李穀, 『稼亭集』, 韓國文集叢刊本, 民族文化推進黨, 1990.  
 東國大學校 博物館·江華郡 편, 『史跡 259號 江華 禪源寺址 發掘 調査 報告書』,  
 東國大學校 博物館, 2003.  
 강화군 편, 『江華 옛 地圖』, 강화군, 2003.  
 김문태 편저, 『강화 구비문학 대관』, 인천가톨릭대학교, 2001.  
 김창룡 편역, 『한국의 가전문학』, 태학사, 1997.

## 2. 논저

- 김건곤, 「釋 息影庵의 正體에 대한 再論」, 『대동한문학』 25집, 대동한문학회,  
 2006.  
 김문태, 「강화도 설화의 민족적 특성」, 『어문연구』 제111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김윤아, 「『정시자전(丁侍者傳)』 연구 : 서술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김현룡, 「釋 息影庵의 正體와 그의 文學」, 『국어국문학』 89집, 국어국문학회,  
 1983.  
 민병수, 「한국소설발달사: 한문소설」, 『韓國文化史大系』 V, 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  
 판사, 1967.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송병렬, 「의인체 산문의 담론 방식과 그 특징 (『동방한문학』 26, 동방한문학회,  
 2004.  
 신기형, 「가전체 문학논고」, 『국어국문학』 17집, 국어국문학회, 1957.  
 이상익, 「가전체문학론에 대한 비판」, 『국어교육』 14, 한국어교육학회, 1968.  
 이종문, 「‘식영암=덕흥군’ 설에 대한 재검토」, 『한문교육연구』 19집, 한국한문교육  
 학회, 2002.

- 조동일, 『(제 4판)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2005.
- 조수학, 「가전연구」, 『어문학』 29, 한국어문학회, 1973.
- , 「釋 息影菴 文學 研究」,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형설문화사, 1975.
- 천혜봉 외, 『2001 학술심포지엄 결과 자료집: 고려 팔만대장경과 강화도』, 새얼문화재단, 2001.
- 황인규, 「고려후기 선원사의 창건과 고승들」, 『경주사학』 제21집, 경주사학회, 2002.

## Relationship a human being and objects: &lt;Jungsigajon&gt;

Kang hye-kyu

Sikyongam(息影菴) is a work handed down in a family portraying 'SukJang'(錫杖) to a human in a form of dialogue between Sikyoungam and Jungsija(丁侍者).

Sikyongam claimed that one needs to find the virtue when facing the object. During the process of directly seeing and feeling the object, he would not only explore the inside but also link to human's moral and tried to expand the meaning and the perception looking through the object. When facing the object, he would consider whether the object and himself could be related to one another. Thus, he examined that a person would be able to find the virtue from the object that they love.

<Jungsigajön>(丁侍者傳) draws the reader into the acquaintance of Sikyoungam and Jungsija, the process in which Jungsija becoming a SukJang, and also the scene where Sikyoungam sends off Jungsija. When Sikyoungam meets Jungsija and hears the story about Jungsija's childhood and his title, Sikyoungam puts himself down with learning attitude with praising highly Jungsija's moral nature.

Sikyongam learns from Jungsija that an object has more noble attribute than himself and tries to reflect on him. Through this work of <Jungsigajon>, one can learn about a mutual relationship between a human and an object, and the human attitude towards an object.

Key words : *Jungsigajon*(丁侍者傳), Sikyoungam(息影菴), SukJang(錫杖), personification, Buddhist literature

접수일자 : 2009. 4. 10 심사기간 : 2009.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9. 5. 20
--